

[오늘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
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9~10

통 권 제 24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4월 26일

☉ 사부 탐방기 조용하지만 막강한 사역-도서실사역팀



주님의 교회
5층에 마련된
도서실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
책 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몽글몽글 솟아오를 정도의 분위기를 자
랑한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탁 트인 전방과 1만2
천권의 책이 깔끔히 정리되어 꽂힌 서가, 50여석의
열람석에 자유롭게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곳에서는 잠깐 들렀던 누구라도 책 한권을 빼내어
들게 된다.

교회를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 잡은 60여 평의 도서
실에는 자원봉사로 현재 스물 네 분의 자원봉사자들
이 일하고 있다. 2003년 말에 개관한 이곳은 우리
교인뿐 아니라 이웃주민, 정신여고 학생들까지 이용
하고 있기에 이곳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문
을 열고 있다고.

분위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하는 사역이라 업무도
평온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
눠보니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도서실 입구에
검색대가 없다보니 책 분실이 많고, 또 연체료를 받
지 않으니 한번 책을 빌려가서 함흥차사인 사람도 상
당하며, 여러 봉사자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기 때문
에 지속적인 연체 관리가 힘들다는 것. 게다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점점 회원은 늘고 있지만 도서실 예
산이 많이 삭감돼 회원들이 원하는 책 구입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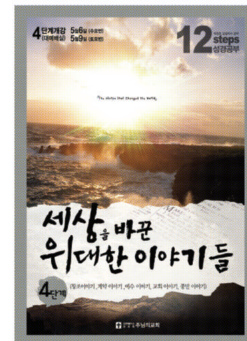
밖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을 송과
구청에서 지급하는 마을문고 지원비로 메우고자 했
지만, 간판 문제(지역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건물 밖에
도서실 간판을 다는 것)가 해결되지 않아 그것도 불투
명한 상태다. "양서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만큼 일일이 구입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가
지고 계신 좋은 책 중 5년 이하의 새 책들은 기증해주
셔도 좋습니다." 벌써 3년째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숙 집사는 이 말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기색이 역
력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요. 새 책이 서가에
꽂히기까지도 7-8번의 손을 거쳐야 하고(신청 도서
선별 및 구입 신청, 심진분류별로 등록, 바코드를 인
쇄 부착 등), 대출되었다 반납된 수백 권의 책을 제자
리에 꽂고 정리해야 하죠. 사람이 제일 많은 일요일
이 지나면 서가의 책들이 많이 뒤섞여 일이 가장 많
거든요. 그래도 이번 사역 박람회를 통해 20분 정도
가 지원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도서실사
역을 하면 좋은 글, 좋은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할 수 있
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
요. 저 또한 그랬고요."

좋은 책 읽고 너무 감명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없다는 최정숙 집
사. 그녀를 비롯한 도서관 팀의 조용하지만 막강한
사역 덕분에 교인과 지역주민들의 풍성한 영적, 지적
인 성장이 오늘도, 앞으로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전소영 기자

12단계 성경공부 4단계 시작!



따뜻한 봄날, 5월과
함께 12단계 성경공부
에서 드디어 4단계의 여
정이 시작된다. 5월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4단계 1강이 시작되며,
출석카드가 없는 수강
생은 7시까지 나와 출
석카드를 발급받기에 혼잡하지 않다.

이번 성경공부는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원호 담
임목사는 "온 성도들이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힘입어 말씀의 영광스러운
여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12단계 성경공부) 김주형 전도사

☉ 사랑나무 예배



4월 19일 장애인 주일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 되었다. 자폐,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
한 사랑나무 예배가 제 3 집회실에서 드려
진 것이다.

4명의 아이들이었지만,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쉽지 않은 첫발을 축하해 주었
고, 앞으로 예배를 드리며 애타는 일도 많
고, 가슴 아픈 일에 눈물 흘릴 때도 많겠지
만, 주님의교회 사랑나무에 사랑이 하나
하나 꽃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다.

준비기간 동안 주님의교회 사랑나무부
서에서는 많은 기도의 손길 속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자폐, 발달 장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시간과 '아이들과의
만남이 차별이 아닌 차이'라는 것'을 배우
는 시간을 가져왔다. 사랑나무 예배는 제
3 집회실에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
다. 많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교
우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북지사역본부 사랑나무 예배팀) 신형섭 집사

4월 정기당회 결의사항

- 1정신여고에서 요청한 성경교사 사례비 지원기로 함
- 2정현희 목사를 중국 협력선교사로 추천기로 함
- 3윤영수 선교사 파송 항공요금 지원기로 함
- 4구제사역, 장애인사역, 꿈나무사역의 신규지원 계
획 승인함
- 5무지개 축제 기획안 승인 함

<2009. 04. 23. 작성자 : 당회서기, 김현덕 장로>



특별히
년목 와야 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무지개축제에 초대합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무지개축제가 이제 곧 시작된다.
해마다 앙상하던 가지가 녹색으로 물들어갈 즈음이면 주님
의교회 안에는 하나의 분주한 흐름이 드러난다. 바로 무지
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언제나처럼 여
기저기 오가는 대화 속에 '빨리라는 단어와 아이-참' 답변
들이 빠르게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호르는 강물처럼 그 모든 소란과 염려들을 감싸 안은 채 여
기 무지개축제를 향해 흐르고 있다.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이하는 무지개축제는 이제 주님
의교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전통문화로서, 심인심색의 다양
한 교인들을 하나로 '아름다운 믿음', '성령의 하나되게 하
시는 친밀함'과 '즐거움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터가 되었
다. 올해 무지개축제는 '주님의 숲에 사는 신나는 어린이'
를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다. 신비와 재미가 보물처럼 감
추어진 주님의 숲에서 마냥 뛰어 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
음으로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데 묶어보려고 한다.

놀 거리가 준비되었다. 다양한 에어바운스와 바이킹 등
놀이기구들을 통해 놀이동산을 꾸며져 있다. 일찍 온 친구
들은 일찍 온 만큼 놀 수 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체험활
동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
비되어져 있다. 또 흥팀과 백팀으로 나누어져 힘(?)을 겨루

어보는 명랑운동회는 승패를 뛰어넘어 기록한 재미로 뭉쳐
진 즐거움 자리이다.

먹거리 장터가 준비되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는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신비의 맛을 간직한 '주님표
스파게티'가, '김밥과 떡볶이'와 함께, 또 다양한 먹거리들
과 함께 가족의 외식을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 장로님
이 친히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숨사탕'과 더위를 씻어낼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준비되어 있다. 비싸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라. 싸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랑과 기도로 준비
한 도시락이 제일 맛있다.

볼거리가 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만드는 한 폭의 그림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랑의 나눔이 분명하
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 '솔티와 함께'를 준비하였다. 또한 끝까지 자리
를 지키는 분들을 위한 행운권추첨을 통해, 담으로 드리는
푸짐한 선물이 주님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2009년 5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오후 4시까지
지 매 시간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무지개축제에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바로 주 안에서 얼마든지 어린이와 같이 된,
그리고 될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넌 꼭 와야 해!" 정요섭 목사



2009년 부활절 4월 12일 9시 30분과 13시 30분 각 2회에 걸쳐 축제예배가 열렸다. 모든 예배실
부터 식당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생생함을 전하고자 모든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고, 2시간이 넘
는 장시간의 축제예배를 배려하여 식당의 나무의지는 모두 쿠션의자로 교체되는 등 세심한 준비로 완벽
한 진행을 보였다. 6,000명이 드리는 예배, 그 많은 인원만큼이나 목적 40일과 부활절의 기쁨은 축제
로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이 태어나는 진정한 부활이며,
부활절의 주님의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일에 한창이다. (축제현장 2면에...)

편집부



PD-40 축제예배 화보	2면
겨자씨 모임	3면
봉사부탐방_도서실사역팀	4면
사랑나무 예배	4면

목적이 이끄는 40일 부활절 축제예배



2009년 1월! 십자가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극 팀에서는 부활절을 겨냥해 고난의 길(Via Dolorosa)을 경험하고자 40분짜리 성극을 만들어 가던 중 PD40 축제 팀에서 부활절 성극을 제안한 10여분의 성극에 수차례 대본을 수정하고 배우를 선정했지요. 일주일에 3번 모여 8시간씩 연습하는 강행군에도 모두들 만사를 제치고 지하유치부실에 모였어요. 모두 고단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쁜 생각에 본인은 물론 식구들까지 불평없이 피곤을 잊었습니다. 노래에 극을 결합하는 작업은 아마추어인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가 십자가의 길을 견뎌,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매일 매일이 눈물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된 천국백성임을 자랑합니다.

- 김예식 권사 -

성극

인형극

"병정들과 동물이 나왔던 인형극을 인상 깊게 보셨는지요? 이번 부활절 연극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나를 향한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극본을 짜고 2주가 넘도록 밤늦게까지 연습했지만, 힘들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연극으로 여러 성도 분들과 나눌 수 있었기에 큰 보람이었습니다."

- 인형극, 윤대운 전도사(어린이 사역본부) -



워십

이번 축제의 워십 준비를 맡았던 고등부의 박소진 스텝입니다. 이번 공연은 워십팀의 교제기로 절반이 고3, 준비기간 4주, 입시와 중간고사에 주말연습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제한된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기회를 가졌고,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워십 팀 지도, 박소진 고등부스텝-



교회 안에 들어섰을 때 잘 준비된 부활절 예배를 보고, '와~주님의 교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참 기뻐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뿐만 아니라, 직분자 분들도 함께 무대에 서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좋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들어주시고, 또한 젊은 찬양사역자를 예배 후에 은혜 받으셨다면서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목회자 분들, 성도 분들이 참 많이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예배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전이된 사건들 속에 '아름다움', '열정',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뽕히 주님의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가끔은 '한국의 예배가 정형화되어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주님의 교회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축제 예배가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이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CCM 사역자 강찬-



다과

목적40을 마치고 부활절을 겸한 축제에 어림잡아도 6천여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간 이러한 각종축제나 바자회를 담당해왔지만, 큰 행사다 보니 염려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 사흘 전부터 포장한 계란만 3,000개 김밥은 1,700줄 ... 머핀, 방울토마토, 과자, 사탕, 젤리, 주일예찬식에 쓰인 빵 포도주 그 양만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에 비해 손이 모자란 곳에 돕는 손길이 공급되며, 신기할 정도로 잘 마무리됨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냐' 물기에 이미 그 선물을 받아봤기에 그 기쁨을 봉사를 통해 계속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이 섬김의 힘이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인 일사'로 그 선물의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보는 건 어떨까요. -최재경권사-



목적이 이끄는 40일 축제를 돌아보며..



2009년 10월 전체 팀이 형성되고, 4주간 교육으로 매뉴얼에 대한 시작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축제만은 자료가 없었다.

초반의 어려움은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었다. celebration(축하,찬양)과 Festival(축제)중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고난'과 '부활', '목적40을 축하' 이 세가지가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예배를 구성해야 했다. 두번째 어려움은 장소였다. 서울시에 우리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교회 인근의 장소는 잠실실내 체육관밖에 없었지만, 농구기간

시즌동안 잠실 실내 체육관이 홈팀인 삼성팀의 경기가 겹치지면서 2주전까지 장소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었고, 결국 '교회에서 준비하는 시나리오'와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시나리오',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행사 2주전 까지 장소에 대한 최종 통보를 거쳐 마지막 1주에 교회안에 모든 설치와 구성이 한번에 해결되어야 했다. 그 수고로움과 묵묵한 헌신을 보여준 모든 주님의교회 지체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어찌다 말로 표현 할 수 있을까...

장소문제로 짧은 기간안에 실행단계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미 두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해 놓았기

에 막힘없이 해결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함께 드러지는 예배를 연출하기 위해 각 장소에서 현장감을 높이고자 카메라 3대의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감사한 것은 우리교회가 이렇듯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 생명력 넘치게 되어 자생력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번 목적 40일 시간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감동이 배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축제가 주님의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소망해 본다. 최상인 장로

작은모임 큰맘을

겨자씨 모임



1-6



6-22



6-3

1-6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길다면 길었던 구역모임의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동안 정들었던 구역식구의 작별과 함께 목사님의 비전을 담아 헤쳐 모인 새로운 겨자씨 모임으로 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이 그렇듯 기대 반 마음 한편은 '잘 적응할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40일 지나고 축막 되는 겨자씨 모임으로 그 뿌리와 어린잎을 내리고 조금씩 뻗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아직도 이기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보시기에 어찌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금씩 그 발걸음을 내딛어봅니다.

믿음의 새내기임에도 예배장소를 제공해주시고 후한대접을 해주신 김경에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성품처럼 화끈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나가길 바라고, 시종 자근자근한 말씀

으로 이 모든 길은 주님과 통한다는 결론을 내주시는 박헌 회 집사님,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은 없지만 늘 빈자리를 채워 주고 경청해주고 공감을 표해주는 역할을 다해주신 최옥현 집사님, 바쁜 3,4월의 세무업무에도 이 자리를 사모해 참석 해주신 이예지 집사님, 그리고 자리를 채움으로 조금 일조한 저 김희선집사, 각각의 달란트와 다른 지체들인 겨자씨 모임에 합력을 통한 선을 이룸에 애쓰신 구역장님인 정순희 집사님의 소망대로 기도로서 하나가되고 자매로 거듭나고 축제피켓 슬로건처럼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작은 겨자씨가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멀리 뻗어나갈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선 기자

6-22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목적이이끄는 40일 소그룹모임 때에는 6주만 한다는 생각으로 다짐하고 시작하였는데, 6주 도중에 장소제공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장소 제공자라는 이유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여 빨리 인도자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6-22겨자씨 모임의 특징은 젊은 연령대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30대가 중심이고 20대, 40대가 같이 어울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오고, 또한 서로 공감

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죠. 이제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식사도 같이하고, MT도 가는 등 구성원이 주님의 이름 아래 먼저 교감하려고 합니다.

겨자씨 모임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먼저 구성원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겨자씨 모임이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닌 전도, 기부, 사회봉사 등의 주님의 사명을 있는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신재현 기자

6-3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우리모임

PD40이 시작되던 첫날 우리 소그룹(6-03구역)회원들은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금요일모임 때 2~3분간 통성으로 중보기도를 하며, 매일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거듭 이루어지는 산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고, 우리 모두는 그 감동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모임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자씨모임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적어 내놓은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박현용 집사

